

음성 가이드 : 지옥 주변의 식생

온천에 가까워지고 유황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방문한 사람들은 곧 이곳이 왜 거품 지옥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유황 가스, 섭씨 100도에 가까운 수온, 산성이 강한 토양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독자적으로 번식하고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옥 주위의 식물들은 이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서 가장 키가 큰 것은 적송입니다. 그 아래에는 관목인 두릅나무와 미야마키리시마(규슈의 진달래꽃) 등의 진달래가 수 종류 생육하고 있습니다. 미야마키리시마(규슈의 진달래꽃)는 4월 하순에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그 외에는 붉은 줄기가 비틀린 것처럼 보이는 타원형 잎을 가진 네지키, 블루베리와 동종으로 열매를 맺는 관목인 모새나무가 있습니다.

식물들은 솟아나는 뜨거운 물이나 가스 분출구 바로 옆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새나 키가 큰 등심초는 이런 온천 옆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인한 식물입니다.